第261回國會
(臨時會)

2014年平昌冬季올림픽 誘致特別委員會會議錄

第 3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6年8月29日(火)

場 所 特別委員會會議室(議員會館 101號)

議事日程

1. 결의안 채택의 건
2. 국회 평창특위 해외방문단별 유치지원활동 기본계획(안)
3. 현안보고
   가. 문화관광부
   나.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다. 강원도
   라. 대한올림픽위원회
4. 간사 개선의 건

審査된案件

1. 결의안 채택의 건 ····· 1
2. 국회 평창특위 해외방문단별 유치지원활동 기본계획(안) ····· 3
3. 현안보고 ····· 6
   가. 문화관광부
   나.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다. 강원도
   라. 대한올림픽위원회
4. 간사 개선의 건 ····· 16
o 간사(엄호성) 인사 ····· 16
3. 현안보고(계속) ····· 17
   가. 문화관광부
   나.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다. 강원도
   라. 대한올림픽위원회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정덕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결의안 채택의 건

○위원장 정덕구 의사일정 제1항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작성소위원회의 안민석 소위원장님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대신해서 이광재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기초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이광재 결의안작성소위원회 이광재 위원입니다.

결의안작성소위원회에서 기초한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

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안민석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을 중심으로 결의안작성소위원인 이광재 위원, 이계진 위원, 손봉숙 위원이 제기한 의견을 취합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오늘 오전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의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국회는 우리나라가 각종 국제체육대회 개최 경험과 성숙한 국민의식 그리고 경제력에 비추어 2014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국가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최될 경우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천명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유치 능력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2014년 동계올림픽을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의 평창에서 개최할 경우 IOC가 지향하는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정신을 제대로 실현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올림픽정신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대한민국국회는 동계올림픽 유치가 국가적 주요 과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국민과 국가기관 모두의 합심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적 주요 과제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넷째, 대한민국국회는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IOC로부터 공인받은 우수한 경기장 시설 건립에 만전을 기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다원적 교통망 확충사업 등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번 IOC 위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확고히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다섯째, 그동안 대한민국국회는 서울올림픽, 월드컵 축구대회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지원법,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 사실이 있다는 점과,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평창으로 결정될 경우 대한민국국회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 '2014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법'을 제정하여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국회는 2014년 동계올림픽의 유치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결집된 의지와 국가 역량을 바탕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IOC 회원국 모두에게 천명한다는 점과, 2014년 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IOC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간곡히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결의안작성소위원회에서 기초한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지 결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덕구 안민석 소위원장님과 이광재 위원, 손봉숙 위원, 이계진 위원님, 이상 네 분의 소위원님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신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지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심재엽 위원님!

○심재엽 위원 심재엽 위원입니다.

내용이 아주 정말 의지가 담겨 있고 상당히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이계진 위원님, 손봉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감히 하나 토를 단다면 첫 번째, 두 번째 문항에 있어서 첫 번째 문항에서 국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두 번째 문항은 분단국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세계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에 크게 기여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 문항의 '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의 평창에서 개최될 경우 세계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천명' 이 부분과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해서 둘째 문항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구 2번하고 3번을……

○심재엽 위원 1번의 '세계평화와 인류의 공동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둘째 문항의 분단국이기 때문에 우리 평창에서 개최되었을 적에 이러한 강점이 있다는 이 부분에 넣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첫 번째 문항은 우리가 국가적인 능력을 천명하는 것이고요.

감히 제가 소견을 한번 내 봤습니다.

○손봉숙 위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1번의 두 번째 문단하고 2번을 한 데 합치고 1번을 약

간 보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구 그러면 1번하고 2번을 심재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하도록, 소위원님들께서 다시 수정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심재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덕구 문화관광부장관님, 이렇게 해 드리면 앞으로 유치활동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덕구 한승수 위원장님, 특히 이 문장에 대해서 더 절절하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 한승수 아주 그대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덕구 그러면 이제 의견이 더 없으시면 결의안작성소위원회에서 기초해서 제안한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지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결의안으로 채택하고 심재엽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서 본회의에 제출하고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하는 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은 이 결의안을 정기국회 개회 후 가장 빠르게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2. 국회 평창특위 해외방문단별 유치지원활동 기본계획(안)

(10시18분)

○위원장 정덕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회 평창특위 해외방문단별 유치지원활동 기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외국을 방문하여 유치 지원활동을 하고자 하는 뜻은 동계올림픽 유치 공식후보도시들을 포함한 동계스포츠 선진국들의 체육행사와 시설 또는 동계올림픽 준비상황 등을 둘러보고 배울 점을 찾아서 우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동계올림픽유치 시 그 행사를 훌륭하게 치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의회 지도자들이 각국의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의 경우에 집중적으로 우리 국회의 해외활동을 경주할까 이런 생각을 해 온 가운데 각 해외방문단별로 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활동계획안을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IOC 윤리규정이라든지 기타 전략적인 포인트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유인물을 참고해 보시면 그동안에 각 분야별로, 각 지역별로 단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안을 다듬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상국가나 기간, 일자 등에 있어서 일부의 변동은 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끊임없이 상대국가와 접촉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과 기간과 국가를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큰 틀에서 이견이 없으시면 이따 제2부에 우리 위원들끼리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를 할 것이 있으면 하기로 하고 일단 큰 틀에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배 간사님!

○임인배 위원 임인배 위원입니다.

우리 국회법에 보면 아무리 특별위원회라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월드컵 유치라든가 아시안게임 유치활동을 하러 제가 외국에도 많이 나가보고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하는 수석전문위원이라든가 전문위원이 있는데 어떻게 한번 이야기도 안 하고, 전화도 한번 안 하고, 상의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여야 간에, 물론 모든 정치라는 것이 여당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최소한 요사이 핸드폰도 발전이 되어 있고 전화 한 통이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동안에 제가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외국 시찰을 갖다 온다고 자리를 비웠습니다마는 성의만 있으면 외국에 있어도 전화 다 되잖아요. 전화 다 가져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위원장 정덕구 수석전문위원 말씀 전에 여기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아마 지역방문단별로 자율권을 드렸고 그 지역방문단 내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석전문위원이 자율권을 침해한다든지 이랬을 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는 박세환 위원님께서 아시아·오세아니아팀이시지요?

○박세환 위원 예.

○위원장 정덕구 그러면 임인배 위원님하고 안민석 위원님하고 이 문제를 논의를 안 하셨습니까?

○박세환 위원 ……

○위원장 정덕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동안의 내용에 관해서 관여는 못 했습니다마는 각 분과 방문단별로 결정한 것이 올라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따가 간담회 석상에서……

○임인배 위원 위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저도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안 그래도 이것을 누구한테 넘겨줄 것인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강원도에서 개최를 하니까 우리 야당에 있는 강원도 위원님 누구한테 넘겨주려고 생각하는데 넘겨주고 안 넘겨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최소한 전화를 못 하시면 수석한테 시키든가 아니면 여당 간사라도 서로 상의하고 이러셔야지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협조 못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생각해요. 제가 국회의원 1년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국가적인, 저도 대한사이클연맹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체육이라는 것은 여야가 없어요. 저도 그것이 좋아서 체육계 활동을 국회 활동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평창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높이려고 하는데 여당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위원장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최소한…… 물론 저도 바빠서 참석 못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해 가지고 따라와라 그렇게 하면 이것 무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특히 이것이 여야 간에 쟁점이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치를 해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을 한번 빛내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열성을 가지고 또 성의를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덕구 잘 알겠습니다. 임인배 간사께서 그동안 상임위원장도 맡으시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으셔 가지고 위원회에 참석을 못하시는 바람에 아마 커뮤니케이션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위원들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은 모든 결정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시고 그다음에 참석을 촉진하시고 그래서 원활하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은 우리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고요.

다른 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해외방문단별 유치지원 활동계획안 중 조정한 방문일정은 조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하고 앞으로 2부에서 우리가 논의할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결정된 대로 앞으로 위원회 안으로……

엄호성 위원님!

○엄호성 위원 의결하기 전에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 사항이라서, 우리 특위를 지원하는 문광위원회의 전문위원, 보좌진들에게 국회속기록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꼭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정이 조정되면 현지에서 활동하는 활동 내역도 당연히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문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누군지 몰라도 보좌하는 자세가 너무 형편없어요. 이것 한번 보라고. 일정이 조정되었으면 현지에서 원래 원안대로의 일정에 맞추어서 국제적인 경기를 참관하게 되어 있는 일정은 당연히 삭제가 되어야지 그것이 그대로 들어 있으면 어떡해요. 이것을 모르고 위원장이 그대로 일정만 조정된 상태에서 나머지 안은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의결해 버리면 위원장의 권위는 뭐가 되는 것이에요?

위원장님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좌진들이 너무나 성의가 없고 하는 둥 마는 둥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더 이런 실무적인 잘못이 적발이 된다면 보좌진 전면교체를 요구합니다.

○손봉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덕구 예.

○손봉숙 위원 이 일정을 짜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일정을 짜려고 보니까 너무나 막연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일정 자체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감을 9월에 할지 10월에 할지도 모르는데 외국에 언제 가겠느냐고 물어본다고 일정이 짜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을 정말 텐서티브(tentative)하게 짠 것입니다. 이것은 잠정적으로 짠 것이고 이것이 국회 일정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통과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구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것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바뀔 사항을 감안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한 대로 하기로 했는데, 엄호성 위원님!

○엄호성 위원 예.

○위원장 정덕구 이것은 내가 어제 경위를 보고를 받았는데 내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방문기간을 각 방문단별로 해 왔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12월 중에 방문기간을 잡은 유럽 B팀과 아프리카·중동팀의 경우 예산국회 때문에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만일 가능하지 않다면, 조정한다면 언제 하면 좋은지, 이 두 개 안을 복수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엄호성 위원 제가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자를 새로 조정을 해 가지고 제출했으면 거기의 주요 활동 내역에 맞지 않는 부분은 실무 보좌하는 문광위 전문위원실에서 알아서 삭제를 해 줘야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이 원 계획상으로는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참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11월 12일, 13일로 바뀌면 당연히 도하 아시안게임 참관활동 내역은 당연히 삭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미주 팀에서 알파인스키 월드컵 8강 경기 참관이 원래는 12월에 들어가 있었는데 11월로 조정이 되면 이것은 당연히 삭제가 되어야지요.

○위원장 정덕구 옳은 말씀이에요.

○엄호성 위원 그렇지 아니한 이 계획서를 가지고 위원장께서 그냥 그대로 일정만 수정된 대로 활동내용은 그대로 의결해 버리면 우리 평창특위의 권위가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실에서는 우리 특위의 권위가 일그러지지 않도록 보다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구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간담회 석상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재조정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하면서 일단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간담회에서 다듬어진 안대로 시행할 것을 결의합니다.

그러면 이 계획안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오늘 산회 직후에 개최되는 간담회에서 더 논의하시도록 하고 구체적인 일정이나 인원 등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같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부,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강원도, 대한올림픽위원회의 현안보고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에 앞서서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수해복구예산 반영 사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조금 전에 해외방문단 일정과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일정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18일 정부가 제출한 2006년 추경예산안의 전체규모는 2조 1549억 원입니다. 그중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 복구와 관련한 추경 지원액은 1171억 8000만 원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오늘 유치위원회에서 만든 당면현안사항 2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우선 1171억 8000만 원 중에서 접근도로망 지원예산으로 983억 9000만 원이 배정되어 그중에 국도 59호에 778억 원, 지방도 408호에 6억 6000만 원, 군도 12호에 163억 8000만 원, 소하천에 35억 5000만 원을 배정하였고 연관시설 지원예산으로 187억 9000만 원 중 국도 6호에 139억 원, 지방도 456호에 23억 원, 군도 13호에 25억 9000만 원이 각각 배정되어 오늘 오후 2시에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이 추경예산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구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수해복구예산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장관님, 정부가 앞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추진하는 데 이번 수해복구예산의 반영사항으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우선 지금 긴급하게 복구를 하고 내년 실사에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덕구 오늘 중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정부에 이송되어서 집행될 경우 내년 2월에 있을 IOC 실사 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건교부라든가 관계부처하고 협력을 구해서 최대한 복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구 정부는 이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세부시행계획을 조속하게 작성해서 강원도 그리고 유치위원회와 협력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

3. 현안보고

가. 문화관광부

나.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다. 강원도

라. 대한올림픽위원회

(10시35분)

○위원장 정덕구 다음은 오늘 현안보고 기관은 4개 기관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문화관광부 현안보고를 듣고 이어서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와 강원도의 현안보고는 유치위원회에서 일괄보고하고 다음 대한올림픽위원회의 현안보고를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현안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존경하는 정덕구 위원장님과 2014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지지결의안 채택, 해외 유치활동 추진 등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7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 평창지역의 폭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들에 대해서 정부는 예비비와 기금 지원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항구적인 복구를 완료하여 내년 2월에서 3월에 예정된 IOC 실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국정 최우선 과제를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창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평창 유치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임인배 위원 자료도 하나 안 돌리고 혼자 하면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오늘 이런 식으로 해서 유치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여당에 큰 사건이, 바다이야기가 터졌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떠나서 전문위원이나 공무원들이 오늘 장관 보고사항이라도 하나 카피라도 해 놔야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상하네요.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렇게 회의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장관, 장관을 내가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분인데 오늘 같은 날 회의하면 넥타이 안 매도 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지금 국무회의에서 바로 달려와서……

○임인배 위원 국무회의하고는 다르지요. 예의상 차에 갖고 다니면서 매야지요. 우리도 이거 더운데 매고 싶겠어요?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이 자료도 하나 갖다 놓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국회 알기를 뭐로…… 우리가 하는 질의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문화관광부 보고는 1차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인사말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준비도 못한 것 같은데 실무선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덕구 위원님들의 뜻을 잘 헤아리셔서 다음부터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전문위원실,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더라도 회의 준비에 철저함이 따라야 하겠다는 지적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도 공감하는 바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잘 해 주시고 오늘은 일단 문화관광부에서 자료를 별도로 만들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리고 지난 7월 초에 우리가 이미 현안보고를 자세히 들었고 해서 아마 오늘 인사말로만 대신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장관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저희 정부에서는 평창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평창 유치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내년 1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할 신청 파일에 포함될 정부 유관기관의 보증서를 차질 없이 지원하는 등 평창 유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추경에서 동계올림픽 수해복구 관련 예산 반영에 적극 노력해 주신 정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덕구 다음은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한승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그다음에 강원도부지사, 그리고 유치위원회에서 현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 한승수 존경하는 정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특위 활동을 통해서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지결의안 채택을 통해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 의지를 표명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동계올림픽 시설과 관련 도로 등은 특위 위원님들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현재 차질없이 복구되고 있으며, 내년 초 IOC 실사 이전까지 완벽하게 복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추경예산에 수해복구 예산을 반영토록 도와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유치위원회는 내년 1월 10일까지 IOC에 제출할 신청파일 작성과 내년 2~3월에 있을 IOC 현지실사, 그리고 금년 10월 1일부터 허용되는 국제홍보활동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종합 로드 맵을 작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IOC 위원 등 국제 체육 인사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위 회의에서 해외활동을 전개해 주시기로 하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번 위원님들의 활동이 저희 유치위원회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IOC 윤리규정이 크게 강화되어 IOC 위원을 직접 면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중 대회 유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2007년 드림프로그램과 2007년 평창 인터스키총회 소요액 중 정부 지원액 13억 원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14평창동계올림픽과 강원도 현안보고는 방재홍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 부지사는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강원도행정부지사 이형구 예.

○위원장 정덕구 그러시면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방재홍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사무총장 방재홍입니다.

먼저 수해복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유치위원회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정덕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국회 특위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계획대로 순조롭게 복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완전 복구를 해서 내년 2월 IOC 실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을 보고드리면, 지난 7월 수해 때 용평 등 3개 리조트와 경기장, 접근도로망 등 총 13개 시설에서 122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상복구하는 데는 총 2088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먼저, 경기장 시설에 대해서는 피해 상황이 경미하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는 완전 복구를 해서 시즌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리조트 시설입니다.

이미 8월 중 응급복구를 완료해서 영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용평리조트는 콘도와 회원제 골프장 등 일부는 영업을 재개했고 단, 호텔하고 1차콘도, 스키하우스 등은 9월 중순에 가야 정상 영업이 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용평리조트만 280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도로 등 연관시설은 IOC 실사 이전에 완벽한 복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59호선은 이미 7월 25일까지 차량통행이 재개되었습니다마는 8월 말 현재 가포장이 완료단계에 있고, 12월 말까지는 완벽 복구를 하겠습

니다.

실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금년도 6월에 착공했습니다마는 진부-마평 구간은 개량된 노선의 공사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겠고, 마평-나전 구간은 실시설계도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시설별 복구계획은 현지 피해조사 결과 확정된 복구비 소요 예산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시 특위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복구비 총액 2088억 원 중에서 국비 지원분 1171억 원이 이번에 확정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 국비 예산 확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2~3월에 있을 IOC 조사평가위원회로부터 현지실사가 있고, 또 7월 4일 과테말라 IOC 총회에서 개최 도시를 결정함에 따라서 내년도 IOC 실사 준비와 각종 국제대회 행사 참가 등 국제홍보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일부 미흡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반영된 것 같아서 저희들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대회유치 사업비는 총 157억 원이 소요되고 그중에서 국비가 74억 원입니다마는 74억 원 전액이 반영된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치 관련해서 행사비는 총 33억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14억 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1억 원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경기장 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이 총 305억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그중에 국비가 152억 원이 소요되는데 152억 전액이 반영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망 확충에 대한 예산인데요, 주요 사업은 원주-강릉 간 복선철도 100억 원과 국도 59호 공사 및 설계비 300~400억 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123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주-강릉 간 복선철도는 55억 원이 반영되고, 나머지 반영이 안 된 부분은 BTL 방식에 대한 타당성 조사비가 건교부에서 결정된 이후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해서 아마 빠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도 59호선에 68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서 문화관광부와 건교부 등과 협의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2월에 IOC 현지실사 때 맞추어서 저희가 실시하고자 하는 드림프로그램 운영과 평창 인터스키총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아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반영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한올림픽위원회 총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올림픽위원회총무 김상우 존경하는 정덕구 위원장님, 존경하는 특위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국가적인 사업인 2014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특위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유치 활동에 대한 일차적인 간략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된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저희의 기본 추진방향은 국제유치환경 개선을 일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대한민국 스포츠가 국제적으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클린 캠페인이라든가 주요 국제대회 및 행사의 동시 다발적 유치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혼선과 우려, 거부감 이런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KOC 고유의 역할과 기능에 적합한 유치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 방침으로는 국제연맹과 NOC 임원 겸직 IOC 위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행사에 유치지원단을 파견해서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평창 홍보활동 및 스포츠 외교 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NOC 간 교류 추진 다양화 및 주요 전략 국가 선정으로 선수단을 초청 또는 파견해서 우리가 국제스포츠에 기여하는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스포츠의 위상을 적극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KOC 특성을 살린 유치활동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전문 컨설팅사의 자문을 통해서 국제동향, 특히 유치 경쟁국 정보 또는 IOC 위원 동향 이런 것을 토대로 한 차별화된 KOC 유치지원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또 경기단체 체육 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IOC 위원의 성향 파악 및 국내 친분 인사들을 적극 활용해서 전담 인사들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IOC 위원별로 친분을 가지고 있는 국내 인사들이 체육계에는 좀 있습니다.

국제행사를 개최할 때는 전담 인사를 포함한 유치지원단 파견으로 유치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경기단체 및 체육인사로 구성된 유치지원단 구성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소요 예산안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총액이 8억 7393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액을 보면, 유치지원단 파견하는데 5억 500만 원, NOC 교류협정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금액이 2억 5800만 원, 홍보물품 제작 등 홍보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금액이 1억 1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특정하지 않고 시간제한도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엄호성 위원님!

○엄호성 위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9월 4일부터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을 나가시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국을 순방을 하시는데 평창특위의 일원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을 통하여 대통령께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국가적인 아젠다로 설정되어야 되는데, 대통령의 순방활동 사항 중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 장관으로서 대통령께 꼭 건의를 하셔서 대통령의 해외순방 활동 시에 국가원수 또는 방문 국가의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꼭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수행하는 각 기업인들과 공무원들이 그 활동을 아울러 병행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알겠습니다.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구 다음에 또 질의하실 분, 서재관 위원님!

○서재관 위원 강원부지사님, 요전에 우리가 알펜시아 현장에 갔을 때 개별 지주들의 시위가 있는 것을 봤는데 그 문제가 해소됐습니까?

○강원도행정부지사 이형구 지금 그쪽하고 계속 접촉하며 절차에 의해서 진행 중이며, 그쪽 주민에 대해서는 각종 특혜나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재관 위원 협의하면 적어도 내년 2월, 3월에 예정돼 있는 IOC 현지실사 전에 문제 해소가 가능하겠습니까?

○강원도행정부지사 이형구 그전에, 곧 협의가 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재관 위원 접근이 되고 있습니까, 상호간에?

○강원도행정부지사 이형구 예, 접근되고 있습니다.

○서재관 위원 실사 앞두고 걱정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이 갔을 때 그랬던 사람들이 IOC 실사위원 왔다고 조용하겠느냐, 결코 조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개인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끝마쳐져서 그때는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강원도행정부지사 이형구 예, 유념하겠습니다.

○서재관 위원 그다음에 접근로 문제인데요.

내년 예산에도 일부 반영되고 했습니다마는 주관을 IOC유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물론 주무부처는 건교부 협조를 통해서 건교부에 시행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구상은 유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원주-강릉 간 철도, 그다음에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국도 6호선 횡성-강릉 간, 국도 59호선 진부-나전 확·포장 등을 주요 접근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지요?

○강원도행정부지사 이형구 예, 그렇습니다.

○서재관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강원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위원회에서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강원도행정부지사 이형구 지금 건설 분야는 도 건설국 쪽에서 건설부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그 과정에서 유치위원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재관 위원 그런데 접근로 확장사업 또 신설사업 등이 충분한 교통수요 조사가 돼서 한 것인지 여부가 조금 걱정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어때요? 충분한 수요조사를 한 겁니까?

○강원도행정부지사 이형구 도로 계획을 세울 경우에는 수요량이라든지 기타 예산이라든지 건교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재관 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건교부를 상대하든 어디를 상대하든 질의를 할 예정이니까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교통수요 조사한 것에서부터 건교부와의 협의과정 등이 전부 기록으로 남아 있을 텐데 그 기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건대는 접근로 신설·확장공사 등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 손님들, 그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방문하는 손님들을 위한 교통 편의만을 고려한 것이지 충청이나 호남, 영남 등에서 오는 관광객 또 참관객—전 국민들이 관람하러 많이 오실 텐데—그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요에 대한 조사가 충분치 않아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은 없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충분히 고려가 됐습니까, 그것도?

○강원도행정부지사 이형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교부와의 협의과정, 그다음에 교통수요량 조사한 모든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관 위원 지금 이 계획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그다음에 외국에서 오는,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됐는데 충청 호남 영남, 우리 국민들이 오는 접근로는 전혀 고려가 안 됐다, 그래서 평시에 영동고속도로만 이용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그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도 영동고속도로가 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서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저한테,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거니까 일주일 이내에 저한테 제시할 수 있으시지요?

○강원도행정부지사 이형구 예, 제출하겠습니다.

○서재관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구 심재엽 위원님!

○심재엽 위원 심재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재관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철도나 도로 인프라에 대해서는 IOC에서 지난 실사 때 필요충분조건으로 제시했던 철도·도로망인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 각지에서 올림픽을 참관하고…… 이러한 인프라를 우리가 추가로 정리해서 IOC 실사가 나왔을 적에 일정 부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그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전향적인 제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국가적인 예산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고려사항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엄호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강원도 출신 의원으로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시안게임이라든가 또는 중요한 국제행사에 대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시 대한민국 체육행사의 가장 큰 우선 아젠다가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장관님께서는 그런 것을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보고에 보면 IOC 위원의 자진사퇴, 자격정지 등으로 실추된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격 상실이 된 이런 분들이 현재 IOC위원 자격이 아닌 상태에서 올림픽 관련 행보를 한다든지 또는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된 행보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대한올림픽위원회총무 김상우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김운용 씨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고문으로 추대돼서 계십니다.

○심재엽 위원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이런 유치활동, 아시안게임이든 국제올림픽 무대에서 활동하

시는 것이 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올림픽위원회총무 김상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도움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재엽 위원 좀 답변이 애매한데, 장관님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판단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적극 밀어주시고, 아니면 자제를 요청하는 그런 확실한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국제 무대에 있어서의 동계올림픽 유치 전체에 영향 이런 것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그런 것도 검토가 되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분의 개인적인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할 것인지는 저희들도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치위원장님 또 KOC위원장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엽 위원 마지막으로 강원도에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난번 전체회의 때 원주-강릉 복선전철, 기획예산처장관께서 100억 증액을 약속하셨는데 기본설계가 55억인데 기본설계가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전 구간이 다 반영된 예산입니까, 55억이?

○강원도행정부지사 이형구 지금 원주-강릉 간 복선철도는 기본설계 한 후에 향후는 BTL 방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심재엽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원주에서 강릉까지 전 노선에 대한 기본설계비가 55억입니까?

○강원도행정부지사 이형구 지금 전 노선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엽 위원 올림픽을 치르려면 전 노선이 기본설계가 돼야 되는데 왜 100억에서 55억밖에 반영이 안 됐지요? 전 노선을 기본설계 하는 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강원도행정부지사 이형구 실시설계까지 고려해 가지고 전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는 BTL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BTL사업자가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심재엽 위원 그것은 그런데, 기본설계비 55억이 전 구간이 다 반영된 기본설계비냐를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아까 구간 구간 설계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 보는 건데요?

○강원도행정부지사 이형구 55억으로 기본설계는 전체 마무리를 하고 실시설계는 BTL 방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엽 위원 그러면 100억이 다 예산 확보가 안 돼도 기본설계를 완성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강원도행정부지사 이형구 예, 문제가 없습니다.

○심재엽 위원 그렇습니까?

○강원도행정부지사 이형구 예.

○심재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구 김영숙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영숙 위원 집중 피해로 정말, 지난번에 7월 27일 평창동계올림픽특위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수해 현장을 둘러보고서 정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13개 시설에 1221억 원의 피해가 생겼고, 복구하려면 2088억 원이 소요가 된다고 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시에 주경기장으로 활용될 용평리조트와 보광 휘닉스파크, 특히 이게 피해가 많은데 지금 IOC 실사를 7개월 불과 남겨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시설복구가, 향후 추진사항 이것이 정말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는지, 현시점에서 어려운 사항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강원도행정부지사 이형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장 시설은 시즌 전까지는 완전히 복구가 가능하고, 그다음 리조트 시설은 지금 용평 내에는 큰 피해는 없습니다. 용평이 제일 중요한데 용평 부분도 호텔하고 기계설비 등 해서 9월 중순부터는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그다음에 용평리조트에는 자금을 신청해 가지고, 약 28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으로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도로 부분도 지금 응급복구는 완료하였지만 2월 실사 전에는 응급복구는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도로에 대한 복구는 완벽하게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구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보고함으로써 실사 전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정상으로 모든 것이 가동될 수 있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예상과 다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강원도행정부지사 이형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수해복구와 더불어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국가가 올림픽을 유치하려면 전 국민적 관심과 열의, 홍보가 지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올림픽 유치에 우리는 차질이 없다, 또 IOC 위원들의 표심을 잡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포츠외교를 강화할 계획에 대해서 문광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지금 여러 유치위원회와 KOC와 협력을 해서 향후 진행되는 국제 스포츠대회에 홍보, 그리고 인력 파견 이러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특위 위원님들께서도 해외 홍보활동이라든가 해외 스포츠와 관련된 여러 행사에 참여하셔서 홍보를 도와주시고 유치활동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은 지금 상세한 홍보전략, 유치작전을 문화관광부장관 주재로 해서 따로 모임을 가지고 실무단도 함께 구성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숙 위원 오늘 국회 특위에서 올림픽유치 지지결의안까지 채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평창올림픽 유치에 대해서 국내,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들 있는 분이 대다수거든요. 사실 강원도를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이것이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관께서는 국민적인 인지, 호응도 이것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이 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저희가 강원도와 유치위원회 그리고 KOC와 협력을 해서 안을 만들어서 문화관광부에서 모든 계획을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조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머지않아 대국민에게 유치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인 브리핑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숙 위원 지난 2010년 유치 당시에도 선전했지만 실패했거든요. 그 교훈을 되새겨서 그야말로 IOC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준비와 범국가적인 국민적 관심,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정부와 위원회가 같이 강원도 또 행정기구 쪽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제가 문광부장관 부임 시에 대정부질문을 했었는데, 이것과 조금 벗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도 보고하시면서 조금 허겁지겁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광부가 보면 할 업무가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아요. 월드컵 축구라든가 체육 분야, 문화 분야 총망라해서 여러 가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그때 소년체전, 이것도 지금 문광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과거 문화체육부 시절일 때 체육 분야라서 교육부에서 하던 것을 문화체육부로 가져갔는데 이것이 체육부가 아니고 이제는 문광부가 됐다 말이야, 문화관광부가. 그랬는데 지금도 이것을 껴안고서 제대로 추진에…… 왜냐하면 대상이 유·초·중·고 학생들이고 여기에 매달려서 지도하는 것이 선생님들이에요, 교사들. 거기에 물론 코치들도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합숙도 시켜 가면서 그다음에 방학 때도 뭐고 이게 전부 다 선생님들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선발해서 나가서 잔치 벌일 때 이때도 보면 각 교육청이고 전부 다들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가 방대하게 사업이 많은데 정말 직원들도 한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리를 찾아 줘야 된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소년체전에 가니까 체육교육이라든가 교육과정 정상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볼 시기가 왔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장관님 뵈올 상임위도 되지 않고 그래서 마침 이 자리를 빌려서 체육과 관련되고 아까 인사도 허겁지겁하시고 이래서 조금 교통정리 할 시기가 안 됐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하고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방안을 개선하는 모색을, 같이 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김영숙 위원 제 자리 찾아 주기를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여러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구 이광재 위원!

○이광재 위원 2014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자료 8페이지하고 대한올림픽위원회의 5페이지를 한번 비교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자료 5페이지는 국제행사 파견을 위한 유치 활동을 전개할 앞으로의 계획이고,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자료 8페이지를 보면 주요 국제행사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보면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국제연맹회의 11회 해서 대한태권도총회를 '06년 9월에 태국에서 하게 되는데, 이것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는 이 자료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올림픽위원회는 하키월드컵이 '06년 9월에 독일에서 있는데, 유치위원회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올림픽위원회에 보면 스포텔 모나코에서 하는 행사가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8페이지 행사에 보면 없습니다.

이게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하고 차이가 있지만 당장 보게 되면 태권도총회 같은 경우에 조정원 회장이 기본적으로 IOC위원들에 대해서 관련을 맺고 있고, 김운용 IOC위원이 태권도와 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에 IOC위원들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 두 기구 자체가 국제행사 일정 자체도 정보로서 충분히 공유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약간 우려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올림픽위원회와 유치위원회와 문광부와 외교부가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외교관들하고 연락을 해 보니까 외교관들이 원하는 것은 왜 평창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평창의 장점, 왜 평창에 유치되어야 되고, 대한민국이니까 하는 게 아니고 왜 평창인가, 평창의 장점은 뭐고 다른 데와 비교하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 논리를 달라는 것이 외교관들의 주요한 요청사항이고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도 논리 무장이 되어야만 기본적으로 유치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것은 문광부가 중심이 되어 전체가 모여서 로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존경하는 엄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해외순방 때 IOC위원들하고 면담이 예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각별히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IOC위원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동계올림픽이기 때문에 동계스포츠와 관련된 우리 연맹 회장님들을 충분히 활용할, 특히 개인을 거명해서 뭐합니다마는 장명희 빙상연맹 회장 같은 경우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잘츠부르크에는 베켄바우어라는 독일의 유명한 축구선수가 지금 비엔나에 거주하면서 잘츠부르크 운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어차피 이게 강원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한, 우리가 외교 홍보회사를 선정했다 이런 데 만족하지 마시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구 임인배 위원님!

○임인배 위원 임인배 위원입니다.

먼저 한승수 유치위원장님에게 고생한다는 말씀과 함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외교관 생활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 주재 대사관들을 활용을 잘 하셔 가지고 IOC위원을 초청해서 로비를 하는 게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한승수 위원장님께서는 동계올림픽이 한국에 유치될 가능성을 몇 %로 보고 있으세요?

지금 개인적으로 나라마다 우리나라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분석 좀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 한승수 우선 우리 외교 현장에 나가 있는 대사들이 현지의 IOC위원들을 직접 초청해서 행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임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IOC 윤리규정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임인배 위원 금지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전혀 유치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만나서 특별하게 선물을 준다든가 뇌물만 안 주면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 한승수 아닙니다. 그게 되지 않고요. 그래서 그것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직접은…… 아주 구체적으로 '초청할 수 없다' '면담할 수 없다' 규정이 그렇게 나와…… 여기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평창을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추진하고 있고요.

가능성에 대해서는 로게 IOC위원장과 제가 지난번 아녹(ANOC)총회 때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 얘기를 전해 드리면 "마지막 날까지 자기들도 모르겠더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 그러면 아시다시피 2012년 하계올림픽은 마지막까지 파리가 될 거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뚜껑을 열고 보니까 런던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한 결과가 평창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만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2010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때 저희가 1차 투표에서 50표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그 표가 다 온다고 한다면 굉장히 유리하지만 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선거 때 14대 때 자기 표가 15대 때에 다 오는 게 아닌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 표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를 지지해 준 사람들을 포함해서 지지하지 않은 위원들을 위해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인배 위원 위원장님께서 강원도와 대한올림픽위원회, 또 문광부의 많은 지혜를 얻어 열심히 하셔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 나오셨는데 김상우 총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IOC 상대로 대한체육협회에서 분석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올림픽위원회총무 김상우 죄송스럽지만 사람 마음이 조석으로 바뀌어서 IOC위원들이 공개석상에서야 다 좋게 이야기하고 지지한다는 말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막상 표를 찍을 때 어떻게 될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과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NOC에 관계되는 IOC위원들이 직접 자기네 국가 NOC의 기여를 통해서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국제연맹은 자기네 스포츠 종목을 발전하는 데 기여를 통해서 또 저희가 국제연맹에 관련되어 있는 IOC위원들에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 한승수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느 정도 될지는 여러 가지 환경이, 또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3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어떠냐고 물으신다면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인배 위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어떤 전략 같은 것은 세워 놓았습니까? 그냥 무작정 다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한올림픽위원회총무 김상우 아니요, 유치전략은 나름대로 다 차별화해서 세워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표 찍는 사람은 114명의 IOC위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 개별 개별적으로 뭐에 대해서 선호하고 어떤 것이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분석하고 연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사실 동계올림픽을 하는 나라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관심이 없는 IOC위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뭐에 의해서 반영할지, 무엇이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리 문광부가 주축이 되어서 유치위원회하고 같이 크로스 체킹(cross checking)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배 위원 대한민국올림픽위원회에서도 문광부 지원을 잘 받아서 이번에는 실패 안 하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한올림픽위원회총무 김상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손봉숙 위원님!

○손봉숙 위원 손봉숙입니다.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할 때마다 장관님 인사하고, 위원장님 인사하고, 위원 누구 인사하고, 이렇게 형식적인 것을 그만하고 실질적인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특위 위원들이 개인적으로는 스포츠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스포츠계하고 그렇게, 그 내막을 잘 모르는 위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한국에서 스포츠단체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나 각종 스포츠단체의 회장이나 임직원들이라든가 유명한 스포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인포멀(informal)하게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차 한 잔을 서로 서서 같이 마시면서 왔다갔다하면서 스포츠계의 동향이나 분위기를 좀 들어 본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를 스포츠계에 익숙해지게 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자유스럽게 스포츠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느 나라는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책상에서 마이크 놓고가 아니고 자유롭게 이야기도 하고 5분씩 나와서 발언도 해서 동향도 알려 주고, 듣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익숙해지는 그런 훈련을 하고 나서 유치활동에 뛰어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덕구 손봉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운영을 이런 전체회의와 함께 간담회 형태를 다양하게 섞어서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가운데에서 위원님 말씀을 깊이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혜석 위원 열린우리당의 서혜석입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임인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평창 가능성에 대해서 한승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김상우 KOC 총무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최선을 다할 뿐이지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사실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도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KOC의 김정길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러시아의 소치가 후보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두 분이 예상하기가 힘들다고는 하셨지만 문광부장관님께서는 어떻게 판세를 보시는지 좀더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얼마 전에 실무진들끼리 모여서 표 판세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각 위원들의 성향분석을 했는데 아직 좀 낙관적이지는 않다, 한 30~35, 그 정도를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확보해야 할 표를 한 20표 정도는 더, 세 도시로 나뉘기 때문에 20표 정도를 확보해야 할 것 같다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별로 개인 성향이라든가 국내와 연결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지금 세밀하게 확보해서 그것을 어떤 단체에서 또 누가 이러한 위원들과 섭외를 하고 접촉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얼마 전에 국제테니스연맹총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회장님께서 IOC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부에서는 각별하게 그분과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그런 분을 처음 오시면서부터 가실 때까지 모든 서비스와 차량 제공, 모든 것들을 하고 좀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설물이라든가 제한 파일이라든가 모든 기본적으로 할 일은 하면서 한편으로는 각 IOC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여러 가지 방안도 함께 연구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문화관광부에서 총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위원님들하고도 정보를 공유해서 협조를 구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서혜석 위원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실 우리가 그전보다 더 비관적으로 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분위기가 상승세보다 조금 더 비관적으로 가는 느낌이 많은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때 사실 원인 진단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KOC 쪽에서도 보고서에 지적을 했는데 우리 IOC위원들의 이미지 실추라든가 주요 국제대회 및 행사의 동시다발적 유치, 이런 문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그런 것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이번의 태풍피해 관련한 그런 문제인지, 하여튼 이렇게 하강세로 간 원인이 무엇인지 장관님께서는 보시는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우선은 러시아의 소치 쪽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이 저희로서는 한편으로는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보고요. 내부적으로는 우리 IOC 국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지 못하게 된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2003년도 유치활동 때보다는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굉장히 적은 것도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또 국제대회를 국내에

서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것이 서로 조정이 되지 않고 IOC위원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선명하게 평창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원인이라고 봅니다. 또 이번 수해로 인한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지금 저희도 잘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저희로서는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지금 다할 생각입니다.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 한승수 제가 한 말씀만 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IOC위원들의 마음을 잡아서 평창을 지지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광재 위원도 얘기했지만 왜 평창이냐 하는 이 논리개발도 참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사실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IOC위원들이 역시 평창을 찍어주고 싶다 하는 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물론 특위가 활동을 해 주시지만 국민이 모두 다 이것을 꼭했으면 하는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평창이 다른 어떤 두 도시보다도 정말 동계올림픽을 하는 장소로서 최선이다 하는 생각을 IOC위원들이 갖도록 하는 이런 전략을 짜 나가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혜석 위원 말씀하셨듯이 다른 도시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홍보를 하니까 저희도 이런 도시들과 경쟁해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정말 치밀한 전략 수립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홍보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문광부가 IOC와 함께 해외공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등 범정부적인 외교활동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기 전에 우리가 성원 문제가 있어서 의결해야 할 사항이 하나 생겼는데 한나라당에서 간사 개선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석에 의결정족수가 되어 있는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해서 먼저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4. 간사 개선의 건

(11시33분)

○위원장 정덕구 한나라당에서 간사 개선의 건을 제의해 오셨기 때문에 간사 개선의 건을 긴급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임인배 위원님께서 지금 상임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기타 사정에 의해서 간사 위원을 사임하시고 한나라당 내부에서 엄호성 위원을 새로운 간사 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한나라당 위원님 모두가 동의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한나라당의 엄호성 위원을 한나라당의 간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o 간사(엄호성) 인사

○위원장 정덕구 그러면 엄호성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호성 위원 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의 한나라당 측 간사를 맡게 되어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4년 전 16대에도 제가 이 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프라하에서 IOC 총회가 열려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제 자비로 프라하까지 날아가서 힐튼 호텔에서 3일 동안 마음을 졸이면서 애를 썼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번만큼은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인적 네트워크도 매우, 저로서는 아주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위위원장님인 정덕구 위원님은 저와 같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유치위원장이신 한승수 위원장님은 제가 우리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선배 의원님으로 모셨고, 또 특별한 인연은 한국과 EU 간 의원연맹의 의장님으로서 제가 그 밑의 간사로서 모신 바가 있고, 김명곤 장관님은 아시다시피 같은 대학 동문 선배님이시고, 김진선 강원지사님은 제가 강원도 경찰청에 근무할 때에 같이 일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엄 씨인데 본관이 영월입니다. 평창 옆에 있는 영월이고 해서 여러 가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

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덕구 그러면 앞으로 우리 목표를 달성할, 내년 7월 4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모두 합심 협력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엄호성 위원님의 역할을 크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엄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

3. 현안보고(계속)

가. 문화관광부

나.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다. 강원도

라. 대한올림픽위원회

(11시35분)

○위원장 정덕구 다음, 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영 위원 이원영 위원입니다.

대한올림픽위원회 총무님께 묻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육계에서도 우선순위를 따져서 '동계올림픽 유치가 최우선이다'라고 공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한올림픽위원회총무 김상우 예.

○이원영 위원 그래서 유치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주요 국제대회, 또 행사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유치하는 것을 자제한다고 하고 있지요?

○대한올림픽위원회총무 김상우 예.

○이원영 위원 그런데 요즘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각 단위 종목의 국제대회나 아니면 각 도시들의 유치 이런 부분을 지휘 통솔해서 잘 막을 수 있습니까? 불허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한올림픽위원회총무 김상우 신규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지금 현재 유치작업 활동을 하고 있는 인천이나,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한, 또 2011년 세계육상대회를 유치하려는 대구 경우에는 KOC 차원만이 아니고 정부와 평창유치위 차원에서도, 또 국가적인 아젠다로 2014년 동계올림픽을 정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을 설득을 하고 조정을 하는 그런 것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원영 위원 2014년에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2011년, 또 2014년에 또 아시안게임이 있다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대한올림픽위원회총무 김상우 아시안게임 경우에는 아시아에 있는 NOC 위원장들이 선거를 통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전혀 영향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요.

○이원영 위원 그래서 유치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통일적인 것들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어야 할 것인지, 그래서 국가나 체육인들의 공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국민의 여러 가지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킴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 여러 IOC위원들의 마음을 받는 것이 궁극적입니다마는 그러한 IOC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국민의 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것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의 중요성을 국민한테 홍보하고 알리고 그 속에서 국민적인 열의, 지지 속에 동계올림픽 유치가 좀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내 홍보 부분도 신경을 써서 국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또 체육인들이 동계올림픽 유치가 중요하다 하는 인식이 공유될 수 있도록 국내 홍보에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 한승수 알겠습니다.

○정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덕구 예, 정진석 위원님!

○정진석 위원 결국 IOC위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IOC위원들과 교섭 가능한 인물들이 나서서 구체적인 유치활동을 벌여야 하는데 가장 적합한 유치활동 일선 인물들은 결국 IOC위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내에도 IOC위원이 계시지요? 이건희 삼성그룹회장하고, 또 박용성 회장, 이분은 정지상태인가요? 그리고 김운용…… 사임되었고, 그러면 결국 국내 보유하고 있는 IOC위원은 이건희 회장 한 분이군요.

위원장님! 가능하면 우리 특위에서 당장 이건희, 국내 유일한 IOC위원인, 또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가장 실효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국내 IOC위원님과의 면담을 한번 주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결국은 이건희 IOC위원이 가장 열심히, 가장 실효적으로 유치활동에 나서 주셔야 하거든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이 나선들, 유치위원장이 나선들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당장 국내 IOC위원부터 만사 제쳐 놓고 평창 유치를 위해서 뛰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것이 가능한 현실인지에 대한 점검을 한번 치밀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검 작업부터 우리 특위가 나서야 하겠다 하는 건의사항을 드리고요.

장관 보고 중에 '각종 국제대회 유치, 기 신청한 데도 있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결국 이 역할은 정부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장관께서 조정 역할을 잘 발휘하셔서 여기에 차질 없이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월 중에 제가 캐나다를 방문했어요. 2010년 동계올림픽 3표 차로 우리한테 이긴 나라인데 국회의장 만나고 한국 쪽의 지한파 의원들도 여러 명 만나서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우리한테 이겼으니까 내년 7월 과테말라에서는 우리 좀 지지해 주어라",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직답을 안 하더라고요. 직답을 안 하고 잘츠부르크팀들이 벌써 왔다 갔대요. 상대팀들은 이미 활동을 개시한 겁니다. 그리고 휘슬러에서 캠프 차린다는 이야기도 하고, 밴쿠버 휘슬러가 2010년 개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쟁 상대국들은 이미 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테이블에서 탁상공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좀 되는 겁니다.

더더욱 걱정이 되는 이유는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 각 분야에서 잘 되는 게 없어요. 국민들은 지금 먹고살기도 힘들고 신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매회 신문지상, 방송에 나오는 것 인상 찌푸릴 일들밖에 없는데 또다시 유치경쟁에서 실패를 할 경우에 우리 국민들이 느껴야 할 상실감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렵다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사실 여건이 우리에게 유리한 입장은 아니라고 봐요. 어저께 제가 몽골 대통령을 만나고 왔는데 몽골 대통령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몽골도 IOC위원이 한 명 있는데 지난번 한국이 탈락했을 때 그 사람이 울었답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우리를 지지해 주었던 사람한테 전화 한번 하세요, 오늘 당장. 전화 한번 하셔서, 간접적으로라도 말이지요. 그런 우군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시아 국가 IOC위원들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서, 그리고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다잡고 유치활동 일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결의를 다졌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계진 위원님!

○이계진 위원 이계진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제가 자리를 잠시 비웠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를 중복해서 한번쯤 더 말씀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께서 곧 해외순방 하시지 않습니까? 9월 초에 나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의 말씀 하나가 갖는 의미와 무게가 대단히 크고 대내외적으로 그것이 홍보효과가 대단히 크다는 뜻에서 청와대 홍보수석 접촉을 하셔서 이번에 출국하실 때 가면서 이런 문제에도 힘을 쓰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한 말씀만 하셨으면, 또는 해외에서 기자들을 만날 때도 불법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기술적으로 그런 것을 꼭 유념해서…… 강원도에 오셔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 우선과제로 열심히 유치되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 지역신문에 주로 나고 중앙 언론에는 보도가 잘 안 되니까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으신 것으로 아는 분도 사실 꽤 많습니다.

요즘에 국내에 참 어려운 일이 많고 대통령직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시지만 출국인사 때나 이런 때 한 말씀 하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대통령께서도 지금 평창에 대해서는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9월 중에 평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출국 전에 그런 언급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구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전체회의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많이 지적하시고 그중에는 전반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 참고가 되어야 될 중

요한 말씀도 계시지만 일부는 당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또 감안되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들 말씀 중에 장관님께 정리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난 2010년 추진 때보다는 파워 면에서 좀 약하다는 인상을 받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실사구시적인 전략적 우월성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유치활동에 대한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총리인가요? 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가요?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구 1단계로 총리 주재의 전반적인 전략회의를 제의합니다. 그때 우리 국회 특위 위원들도 참석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나라의 내셔널 아젠다로 한 단계 올리는데, 대통령 직접 주재하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그렇다 하면 총리의 전략회의를 제의하면서 그 자리에서 두 가지의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국제올림픽 유치활동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윈윈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교통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정리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위치가 아마 총리가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 주재로 현재 계류 중인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을 봉합하고 정리할 수 있는 회의를 한번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건희 회장 IOC위원 직접 활동을 촉구하는 건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유치활동 전체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종합이 덜 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림픽위원회에서 보고한 설명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도 현재 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IOC위원이 여러 분이 계시고 전직 국회의원도 여러 분 계신데 이런 것을 초청외교를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외교 전술들이 동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보면 유치활동 전체의 전략과 함께 IOC위원인 이건희 회장 등 스포츠 관련 단체 또는 기업들이 여기에 어떻게 총력을 결집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전략회의를 비공개로 한번 소집하는 것을 문화부장관께서 추진하실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결과와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구 그래서 이 시기를 제 생각에는 9월 중이 적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10월부터는…… 본격적 활동이 IOC의 윤리규정상 처음으로 허용되는 것이 10월 1일부터지요? 그러면 그 이전에 전략회의를 먼저 해서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전체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배석하신 여러 위원들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유치위원회하고 대한올림픽위원회 총무만 간담회에 참석하시고 나머지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전체위원회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김영숙	박세환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심재엽	엄호성	이계진
이광재	이원영	임인배	정덕구
정진석	채수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현
전문위원	최민수

○정부측 참석자

문화관광부

장관	김명곤
체육국장	조현재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위원장	한승수
사무총장	방재홍
강원도행정부지사	이형구
대한올림픽위원회총무	김상우